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연구 콘텐츠 개발과 활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년 1차 연구과제 발표회

🕒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15:00~17:30

📅 장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형형색색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개해 자연이 만들어낸 색이 이토록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지역의 성평등 담론 속에서 여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주여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행사는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연구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2020년에 수행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여성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여성을 역사 속에 새롭게 위치시킴으로써 제주가 지향하는 지역문화유산과 제주공동체의 가치를 제대로 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여성 역사문화 지식콘텐츠는 제주여성과 제주공동체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지식자원으로서 제주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자연과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이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고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제주여성 역사문화를 포함해서 관광 사업이 발달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련 사업으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주민의 이주방식, 정착과정, 가족관계 형성, 노동시장 진입 등 전반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권력관계가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지 관점으로 제주의 이주 역사 및 다양한 이주민 이해를 위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개발한 만큼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는 고지영 선임 연구위원과 선민정, 이해응 연구위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주의 문화 및 인문연구를 수행하신 문순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님, 좌동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회장님,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님, 현성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권익팀장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지역에서 필요하고 추진이 가능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져 제주여성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 콘텐츠로, 향후 더욱 발전된 정책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 무 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년 1차 연구과제 발표회

□ 개요

- 목 적 : 연구 성과 공유 및 주요 정책 아젠다 확산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5:00~17:30
- 주 제 :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연구 콘텐츠 개발과 활용
- 장 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 참석인원 : 관련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연구원 임직원 등 15명 이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인원 최소화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예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사전 등록	30분
15:00~15:10	참석자 소개	10분
15:10~15:20	개 회 사(민무숙 원장)	10분
15:20~16:20	발표 1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기반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발표 2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해설사업 확대 방안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 제주지역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및 활용방안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60분
16:20~16:30	휴 식	10분
16:30~17:10	좌 장 : 문순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토론 2) 좌동열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회장 (토론 3)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 4) 현성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권익팀장	40분
17:10~17:30	질의 응답	20분
17:30	폐 회	



발표 1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기반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 연구 기반으로서의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제주는 “여성의 섬”, “여성의 강인함” 등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역사문화 연구 및 학문 기반 취약으로 여성 문화유산 계승·발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여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 정책으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주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 연구 기구로서의 제주 여성 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성과 고찰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
 - 제주지역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지역 역사 문화 연구 기관의 현황 분석
 - 국내 타 지역, 제주 지역 및 국내 여성 연구 기관 현황 분석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를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
 - 제주지역 여성문화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기본방향과 역할, 주요 사업 및 조직 운영 방안 등
- 제주 여성 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 방안 마련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운영 방향

나. 연구 방법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와 관련한 이론적, 정책적 고찰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와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 고찰
 - 제주여성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성과물 수집·분석 : 해방 이후 ~ 2019년 12월까지 발간된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등의 연구물(312편) 수집, 연구 동향 분석
- 도내·외 역사문화 연구 기관 현황 조사
 - 국내 지역학 및 역사문화 관련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 제주도내 지역학 및 역사문화 관련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 국내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 제주 여성문화 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2회)
 - 전문가 서면 조사, 전문가 집단면접(FGI) 조사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필요성, 주요 사업, 설치 및 운영 방안 등

제2장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성과 고찰

1.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

가.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봄
- 제주여성의 삶 조명과 미래 기획을 위한 지적 자산 구축
 - 제주여성의 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제주여성의 미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기획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지적 자산 구축의 의의가 큼.
- 여성주의 및 성평등정책 관점에서 제주여성의 가시화와 위상 강화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는 역사 기록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제주여성을 가시화하고, 제주 여성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의의가 큼.
- 여성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제주공동체의 가치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에 기여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는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이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제주공동체 실현과 공존의 가치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미래 비전 보고서 등에서 지향하는 미래 비전 방향과 함께 하는 정책적 의의를 가짐.

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

- 제주지역은 2000년대(2000~2010)에 여성 연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타 지역에 비해 여성사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었지만 최근 10여 년 간 제주여성 역사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임.
- 최근 10여 년 간 제주여성 역사 연구가 침체기를 겪는 데에는 여성 역사문화 연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집약화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주기능이 정책 연구에 있기 때문에 여성 역사문화 연구 조직, 인력, 예산 부재의 구조적 한계가 있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젠더 관점의 주변화 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구조적 한계,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기관들에서 여성 연구의 주변화 문제는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하게 경험해 온 현실이고, 여성 연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 향후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연구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및 이를 위한 공공의 행정·제도 지원체계 확충이 필요함.

2.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가.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 분석 개요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분석 대상과 시간적 범위
 - 연구 분야 : 여성사, 여성문화사, 해녀, 제주4·3, 문학 등을 주제로 한 연구물
 - 연구물의 발간 시기 : 해방 이후~2019년 12월까지의 연구물. 다만 연구물이 전근대 시기의 내용을 다루었다라도 발간 시기가 현대 시기에 해당되면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현황 분석에 사용된 자료 검색 방법
 -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iss.kr>)에서 ‘제주(제주도,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여성사, 여성문화, 정치, 경제/직업, 교육, 가족제도, 복지/사회제도, 제주방언(여성어), 민속, 해녀, 제주4·3사건, 문학, 설화(신화, 전설), 민요, 인물(김만덕,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홍운애 등)}’ 등을 주제어로 부여하여 추출함.
- 분석 대상 자료 현황(해방 이후~2019년)
 - 시대별로, 해방 후 ~ 1960년대 4편, 1970년대 9편, 1980년대 11편, 1990년대 48편, 2000년대 86편, 2010년대 154편 등 총 312편을 최종 선정함.
 - 연구물 유형별 학위논문 38편, 학술논문 191편, 단행본 83권이 반영됨.

- 분야별로 여성사(인물) 44편, 여성문화사(여성문화, 정치, 경제, 직업, 교육, 가족제도, 생활 문화, 사회(복지)제도, 성방언) 105편, 해녀 66편, 제주4·3 15편, 문학(현대문학, 구비문학) 82편이 포함됨.

□ 분석 결과 요약

-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분야의 편중, 연구 시기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음. 즉 학문간 통섭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자의 관심이 편중되어 있음.
- 분야별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여성문화사 연구가 105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학 연구 82편, 해녀 연구 66편, 여성사 연구 44편, 제주4·3 연구 15편 순으로 나타남.
- 시대별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여성문화사와 해녀 연구는 전 시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는 대체로 1990년 이후의 성과가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나타남.
- 발간 유형별로 보면 학술논문 191편, 단행본 83권, 학위논문 38편 순으로 나타남.
 - 학위논문 수가 적은 것은 연구 대상 선정 문제, 특정 시기 사료와 자료 구축의 부재, 연구 접근 환경 미흡, 연구자의 관심 분야 편중 등 다양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 학술논문 양이 많은 것은 학술논문 주제로 적합한 분야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단행본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발간한 결과로 보임.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향후 과제

- 공공기관 중심의 주도적 연구 기반 구축
 - 2000년대 들어서 약 10년 간(2000-2010) 제주 여성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담기구와 전문 인력 집약화의 부족으로 여성연구의 침체기를 겪고 있음. 향후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다변화와 지속적인 연구 축적을 위해서는 연구자 양성은 물론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 및 젠더 관점의 여성 역사문화 접근과 자료 접근성 제고
 - 제주도의 인문과 자연 환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여성주의 시각과 젠더적 관점에서 제주의 여성과 남성의 삶과 역사문화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축적된 연구 자료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사료 부족의 한계를 고려한 다양한 연구 방법과 주제 개발
 - 여성 역사 기록의 부족으로 여성 역사문화 연구는 사료와 자료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 제주여성 역사문화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관심 유도 방안 제시 및 연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연구 환경 확충이 중요함.

- 지역사회와 여성연구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연구는 지방사의 시각과 페미니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런 연구들이 제주의 역사문화를 정립하고 미래의 창조적 자산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연구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그 중요성을 논의해야 함.
- 자료구축 및 서비스 지원 플랫폼 운영
 - 여성 역사문화 기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자료구축 등 기초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또한 연구자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 국내·외 지역의 여성역사문화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활발한 연구 교류를 위한 지원 플랫폼 조성이 필요함.
- 타자와의 관점에서의 제주 (여성)역사문화 연구
 - 제주 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 나아가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그런 맥락에서 제주 여성들의 국내·국외 이주사, 외국여성들의 제주 이주사 등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여성역사문화 정립이 필요함.

제3장. 지역 역사문화 연구 기관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내·외 유사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 현황과 성과를 살펴봄.
- 조사 대상, 조사 목적,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등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지역 역사문화 연구 기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여성 역사 문화 연구 기반에 대한 타 지역 및 도내 현황 파악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분석 대상 기관	- 국내 타 시도 역사문화 관련 연구기관 8개소 - 제주도내 역사문화 관련 연구기관 8개소 - 국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여성(정책) 연구 기관 중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가 있는 기관 13개소
주요 분석 내용	- 기관의 기본 현황 파악 :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등 -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파악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분석 방법	- 기관 홈페이지, 전자 DB 활용 등을 통한 정보 수집·정리 - 전화, 이메일 등의 소통을 통한 세부 정보 수집·정리 - (필요시) 기관 방문을 통한 세부 내용 확인 및 보완

2. 국내 역사문화 연구기관 현황 분석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역학 연구기관 8개소
- 조사 내용 : 설립 목적, 사업내용, 운영 체계,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등
- 조사 방법 : 홈페이지 게재 자료, 기관 담당자 연락, 해당 기관 자료 검토 및 확인 등

○ 주요 조사 결과(소결)

- 국내 역사문화 연구기관 8개소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 실적은 총 15건으로 극소수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지역 여성의 역사·문화적 관점을 연구로 이끌어 내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는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여성 관점의 부족 내지 주변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3. 제주지역 역사문화 연구기관 현황 분석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제주도내 지역 역사문화 관련 연구기관 8개소
- 조사 내용 및 방법 : 타 시도 기관 현황 조사 내용 및 방법과 동일

○ 주요 조사 결과(소결)

- 제주지역 역사문화 연구 기관 분석 대상 8개소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5건의 연구 실적이 다수 있어 도외 지역 역사문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비교적 지속적인 연구 성과물이 축적된 경우는 제주4·3연구소,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으로 나타남. 이들 기관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연구성과물이 축적된 요인은 연구기관이 특정 주제에 특화된 경우에 여성 관련 연구 분화(제주4·3연구소), 여성 역사문화 연구에 대한 개인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제주연구원),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제주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광범위한 시공간적 범위를 아우르고 연구의 지속적 축적과 방법론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연구자 양성, 연구자 네트워크 관리 및 활용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의 지원 및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국내 여성 연구기관 현황 분석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17개 시도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중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가 있는 13개 기관
- 조사 내용 및 방법 : 타 시도 및 제주지역 기관 현황 조사 내용 및 방법과 동일

○ 주요 조사 결과(소결)

- 국내 여성 연구기관 현황 분석 대상 13개소 중 도외 12개 여성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 및 성과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주제의 연구 실적이 88건 조사됨. 타 지역에 비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3건)는 상대적으로 미약함.
- 도외 여성 연구기관 중 연구실적이 가장 많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경우 2013년 ~2019년 동안 28권의 연구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전담부서인 '교육사업팀'에서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 고유 기능을 가진 조직 구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 두 번째로 연구실적이 많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도 도에서 '여성인물선양사업'으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2004년~2019년 동안 26권의 연구실적을 구축하고 있어 여성역사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5. 소결 및 시사점

○ 국내 지역 역사문화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 저조

- 국내 타 시도 역사문화 연구기관 8개소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는 매우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 역사문화 연구기관들이 역사문화 연구를 목적 사업으로 포함함에도 여성 역사문화 관점을 연구로 이끌어 내지 않았다는 점은 지역학 연구에서 여성 관점의 부족 내지 주변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드러냄.

○ 제주지역 역사문화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 조직체계 취약 및 주변화

- 제주지역 역사문화 연구 기관 분석 대상 8개소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외 지역보다는 연구 실적이 다수 있지만 여성 연구는 주변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음.

○ 지역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중심적 역할은 여성 연구기관이 수행하지만 연구의 지속성에 기관별 편차 존재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여성·가족 정책 연구기관 13개소의 현황 분석 결과, 일반적인 지역학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성과가 크지만 연구성과의 축적에 있어 기관별 편차가 큼.

○ 지속가능한 지역 여성 역사문화 연구 축적을 위한 예산, 인력, 조직 기반의 중요성

- 지역 여성 연구기관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성과의 편차는 지속적 예산과 연구 기능을 수행할 조직체계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드러냄.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전담 연구 인력 및 조직체계의 확보 등 체계적 연구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제4장. 전문가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조직 방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전문가 조사 개요(2회)〉

구분		내용
① 전문가 서면 조사	조사 목적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서면 지문 의견 수렴
	조사 대상 및 기간	- 도내외 여성 연구, 지역학, 문화 연구 관련 연구자 20명 - 조사기간 : 2020.9.28.~10.8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 문항 일부와 개방형 질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서면 조사
② 전문가 집단면접조사 (FGI)	조사 목적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조직운영 방향,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심층 논의
	조사 대상 및 기간	- 지역학 및 여성 연구 관련 도내외 대학, 연구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 6명 - 조사일: 2020.10.20
	조사 방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에서 집단 면접

2. 전문가 서면 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및 참여자 특성

- 조사 내용 : 제주 여성문화 연구 관련 전반적 인식,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센터의 효율적 조직 방안, 센터의 주요 연구 주제(구조화된 설문 문항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양적, 질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 참여자 특성(총 20명)

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8명(40.0%), 학계 5명(25.0%), 교육계 3명(15.0%), 언론계 2명(10.0%), 시민사회 1명(5.0%), 기타(국가 지원 문화산업기관 종사자) 1명(5.0%) / 계 20명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여성 14명(70.0%), 남성 6명(30.0%) • 연령대 : 40대 4명(20.0%), 50대 13명(65.0%), 60세 이상 3명(15.0%) • 거주 지역 : 제주지역 11명(55.5%), 제주도의 외 지역 9명(45.0%)

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성과와 기여도에 대한 인식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가 어느 정도 잘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평균 2.90점으로 보통 수준 미만으로 평가함.
- 제주여성의 가치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기여'한다고 응답함

- 5점 척도 기준으로 전체 평균 4.74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 4.84점, 남성 4.50점,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지역 거주자 4.54점, 제주도의 거주자 5.0점으로 나타남.

다.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조직·운영에 대한 의견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의 필요성
 - 응답자의 9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5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4.65점(여성 4.71점, 남성 4.50점), 거주지 제주 거주자 4.55점, 도외 거주자 4.78점으로 나타남.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조직 방안
 - 센터의 조직 방안으로 1)별도 기구로 신설, 2)지자체 사업으로 위탁 대행, 3)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인력, 조직 확충하도록 지원 받아 운영하는 세 방안에 대해 조사함.
 - 조사 결과, 지자체 사업으로 위탁 대행 운영 10.0%, 별도 기구 신설 25.0%,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인력, 조직 확충하도록 지원 받아 운영 65.0%로 나타남.
 - 여성의 57.1%, 남성의 83.3%, 제주지역 거주자의 81.8%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인력, 조직 확충하도록 지원 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함.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수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기관
 - 적합한 기관에 대해 1)지자체 출연 여성정책 연구기관, 2)지자체 출연 일반 정책 연구기관, 3)지자체 지원 제주학 연구기관, 4)대학 소재 역사 연구기관, 5) 민간 역사 연구기관의 5유형으로 조사함.
 - 조사 결과, 여성정책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적합'하다(평균 4.80점)고 평가하고, 그 외 기관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 함(제주연구원 2.89점, 제주학연구센터 2.83점, 대학 소재 연구기관 2.56점, 민간 운영 연구기관 2.00점).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기본 방향과 역할
 - 센터의 기본 방향과 역할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 아래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젠더 관점의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제주여성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기관
 - 제주 공동체의 가치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에 기여하는 연구 기관
 - 글로벌 수준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및 확산의 중심점이 되는 연구 기관
-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전반적 고려 사항
 - 센터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1)여성 또는 젠더 관점의 역사 인식, 2)전문 연구자 확보, 3)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5점 척도형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여성 또는 젠더 관점의 역사 인식 4.65점, 전문 연구자 확보 4.90점, 예산 확보 4.90점으로 나타남.

라.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 센터가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기초 연구 사업 : 제주여성사 정립, 제주여성 인물 발굴, 기존의 여성 역사문화 연구에 대한 젠더 관점의 재조명과 보완,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에 기초한 정책 연구 연계 사업.
 - 아카이빙 사업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아카이빙을 고려한 연구사업 설계와 자료 수집, 아카이빙 추진 및 전문 인력 확보,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전문 아카이브 구축.
 - 연구지원 사업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자 인력 풀 구축 사업, 연구자 교류협력 사업(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분야별 연구주제의 시급성 및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7개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의 시급성에 대해 조사함. 조사 결과, 5점 기준으로 제주4·3 연구가 가장 시급한(4.20점)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제주 여성사(통사) 연구(4.05점), 제주여성 인물 발굴 연구(4.00점), 분야별 여성 역사 연구(3.95점), 제주 여성 문화유산 발굴 연구(3.95점), 제주 해녀 연구(3.85점),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연구사업(3.65점)의 순으로 나타남.
 - 7개의 연구 분야별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본문에서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 범위를 제안함.

3. 전문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가. 전문가 집단면접조사(FGI) 개요

- 전문가 서면 조사에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FGI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층 조사함.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조직운영 방향,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심층 논의
조사 대상 및 기간	- 도내외 대학, 공공기관, 민간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 6명 - 조사일: 2020.10.20.
조사 내용	- 연구센터의 기본 방향과 차별화 전략, 연구 주제의 시급성, 세부 연구 주제 제안
조사 방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집단 면접

○ 참여자 특성

- 성별 구성 : 면접 대상자 6명 중 여성 4명, 남성 2명임.
- 소속 : 대학, 공공기관, 민간 연구기관, 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함.
- 전문 분야 : 사회과학, 역사, 문학, 문화예술, 가족, 민속학 등 다양함.

나.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 방안과 중복성 논의

- 센터의 설치 방안
 - 지자체 출연 여성정책 연구 기관 내에 조직과 인력을 갖춘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데에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유사 기관과의 중복성 논의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지역 내 유사 기관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논의와 차별화 논의가 필요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학연구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및 차별화 방안 논의.

다.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

- 제주여성의 삶 '브랜드화'에 대한 문제 제기
 - 기본방향으로 젠더 관점의 여성의 삶 재조명을 통한 제주여성의 가치와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성급한 '여성 브랜드화'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안적 프레임으로 '공동체', '미래 가치' 가 논의됨.

라.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주제 및 방법

- 전문가 서면 조사에서 매우 구체적 연구 주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FGI에서는 연구의 시급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제주여성사, 여성 인물 발굴, 제주43과 여성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였고, 주요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여성 역사문화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전문가 FGI 논의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제주 여성사	제주여성사연구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기록물 부재로 여성사 연구에 어려움이 많음 • 1차 사료 수집 노력 및 신화에 나타난 여성 연구도 필요함
	'사회 현상'에 초점을 둔 분석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상'으로서의 역사 변화 분석 연구 필요
	조명이 되지 않았던 여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 연구에 비해 중산간 지역 여성의 삶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음. 중산간 여성이 제주 공동체에 기여한 역사가 조명될 필요 • 의료 분야에 대한 제주여성 연구가 거의 없으며 조명이 필요
제주여성 인물 발굴	여성 인물을 위한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기록물 부재로 여성 인물 발굴에도 많은 어려움 있음 • 기록이 없는 여성 인물 발굴을 위해서 마을 연구로 시작하는 방안 제안
	여성 문화예술인 발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문화예술인 발굴 연구 필요 •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등과 관련한 여성 인물 발굴 연구 • 가수, 배우 등 문화계 여성 직업인 및 신앙 연구 필요
	제주여성 인물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발굴된 여성 인물은 제한적임 • 분야별 여성 인물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가 우선 필요
제주43과 여성	43과 여성 연구의 취약성 및 연구 방법과 주제 개발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과 여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취약하고 기초 데이터 자체도 부재 • 43의 여성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수준으로 파악 • 구술채록에서 여성 관련 주제를 추출하여 분석 및 재해석하는 작업 • 세대별 43에 대한 인식, 성별 경험과 인식 차이 연구 필요

제5장.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방안

1. 센터 설치의 필요성

-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함.
 - 제주여성 역사문화 지식자원 생산의 시급성
 - 공공 연구기반 확충으로 제주여성 역사문화 진흥의 공공성 강화
 - 제주여성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연구와 콘텐츠 생산의 중심 허브 필요

2. 센터의 목표와 기본 방향

가. 센터의 목표

- 목표 : 국제적 수준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지식자원 생산과 확산 허브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는 제주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 자원 생산과 확산의 중심점이 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여야 함.
- 이에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연구자료 생산과 확산의 범위를 제주 뿐만아니라 국내·외 타 지역으로 확장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센터의 기본 방향과 역할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운영의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각 방향에 따른 역할을 제시함.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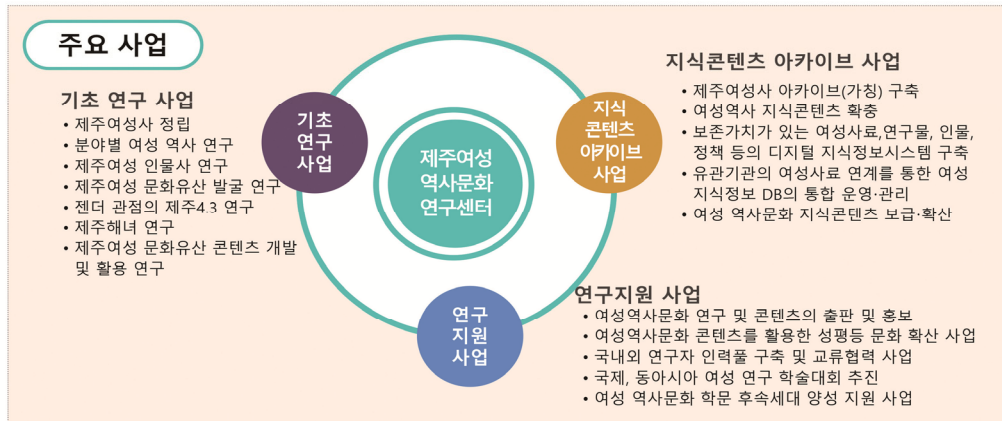
기본 방향	역할
젠더 관점의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제주여성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기관	• 제주여성 역사문화를 젠더 관점에서 연구하는 정체성 확립
	• 제주 여성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평가와 회복
	•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21세기적 젠더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비전 확립
제주 공동체의 가치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에 기여하는 연구 기관	• 제주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도 조명
	• 제주 공동체의 회복과 미래 발전에 기여

주 : 각 역할에 따른 세부 역할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 참조.

3. 센터의 주요 사업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 범위는 기초 연구사업, 지식콘텐츠아카이브 사업, 연구지원 사업의 세 분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 사업을 제시함.
- 센터의 주요 사업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센터의 주요사업〉



주 : 각 사업별 세부 추진 사업은 본문에 상세히 제시함.

4. 센터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

가. 센터 설치·운영 모델

-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센터 설치 방안을 네 가지 모델로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함.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모델 및 장·단점 비교〉

설치·운영 모델	장점	단점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 기관의 출연 또는 공공기관 대행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기능 확보 • 공공 행정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연구 조직 운영의 노하우 보유로 책임경영 가능 • 민관 파트너십 구축 용이 • 여성 관련 기관에 출연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보유 • 역사문화 연구 콘텐츠와 사회정책 연구와의 연계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위탁하는 경우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 인력의 고용 불안 - 센터 운영에 대한 낮은 책임성 - 사업 추진의 자율성, 독립성 어려움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관라감독의 효율성 • 예산 확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미흡 •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책임 경영 및 일관성 유지 어려움
민간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기본방향과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경우에 전문성 확보 • 민간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용이 • 운영의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지속성 담보 어려움 (재위탁 문제 등) • 인력의 고용 불안
독립 법인으로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고유 정체성 및 전문성 확립 •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증가로 도의 행정적 부담 가중 • 장기간의 준비와 시간 소요로 단기간 설립 어려움

나. 타 공공기관과 중복성 검토, 차별화 및 협력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4개의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와의 중복 가능성은 없음.
- 4개의 공공기관과의 차별화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과의 차별화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함(세부 내용은 본문 참조).

다. 조직 및 인력 운영

- 센터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방향
 - 주요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고려한 사업 대응형 조직 설계
 - 조직계층 단순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센터장-팀” 체계로 편제
- 센터의 주직 및 인력 구성
 - 센터의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구팀, 지식아카이브팀, 연구지원사업팀, 행정지원팀으로 편제하고, 인력은 총 20명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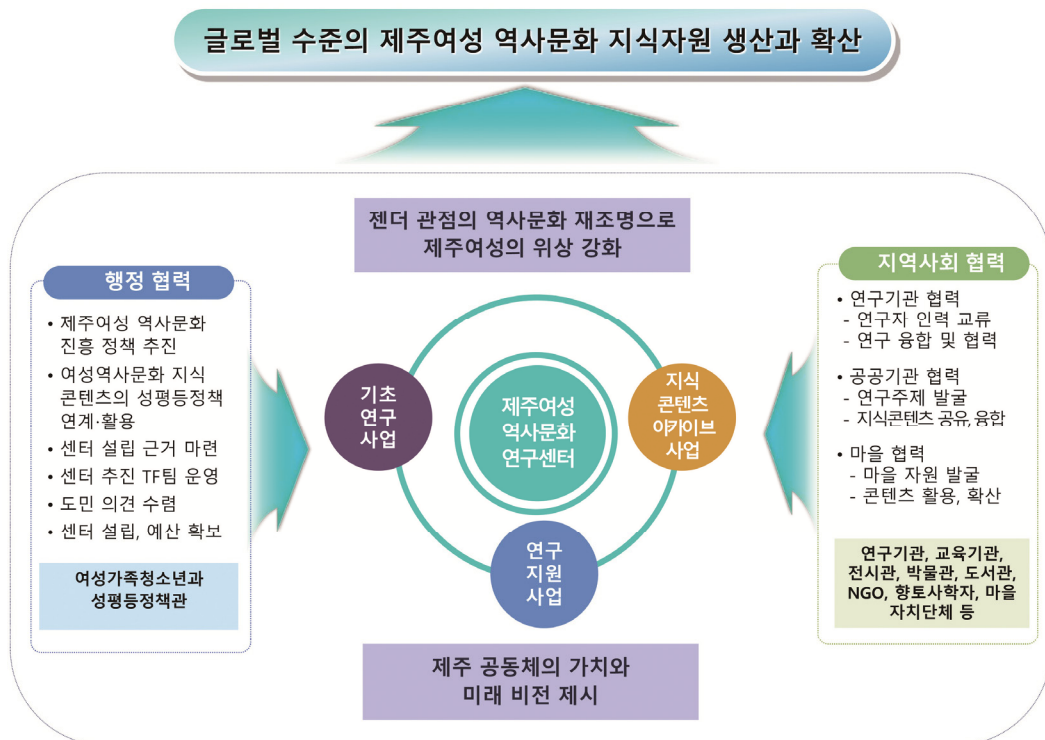
〈제주여성역사문화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라. 행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제시함.
- 행정협력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센터 운영 모델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연구기관, 공공기관, 마을 협력체계 등 제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운영 협력체계〉



5. 향후 과제

- 제주여성 역사문화 진흥과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4가지로 제시함.
-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진흥 및 추진체계 구축
- 제주여성 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추진 TF팀 운영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발표 2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해설사업 확대 방안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선민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며 국가적 행사를 많이 개최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음. 이후 문화관광 관련 해설 활동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하게 되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제주특별자치도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2020년 기준으로 186명을 총 33개의 관광지에 배치하고 있음. 또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문화관광해설사를 꾸준히 양성해왔음(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제주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문 분야임에도 현재 교육에서의 전문성 부족과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운영되면서도 행정적으로는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어서 나타나는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들이 있어 한계가 있음.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제주지역에서 여성 문화관광해설사가 2020년 기준으로 75.7%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돌봄 등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타 직종보다 수월하기 때문일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경제활동참여율이 14.3%p 만큼 낮으며(통계청, 2018a),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도 11.4%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18b)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왔기에 도에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제주지역의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맞춰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은 매우 필요할 것임.

-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돌봄 및 경력단절로 인하여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은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적이면서도 짧은 시간 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서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 및 운영 과정을 개선하여 좀 더 여성들에게 질 높고 일하기 수월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현황 등 검토 및 분석
-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관계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분석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안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상황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한 현황 검토
 -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정책 검토
 -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문화 및 관광 관련 전문가 4명 내외
 - 방법: 회의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설문지 초안,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설문조사
 - 대상: 2020년에 활동하는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 방법: 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 방식 병행

- 내용: 운영실태, 근무실태, 근무환경, 운영 및 근무 관련 애로사항 및 긍정적인 점,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정책 수요 욕구 등

○ 문화관광해설사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대상: 제주지역 여성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총 23명
- 방법: 초점집단면접조사 (1회당 2시간씩 총 4회 실시)
- 내용: 여성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는 운영실태, 근무실태, 근무환경, 운영 및 근무 관련 애로사항 및 긍정적인 점,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정책 수요 욕구 등, 전문가 대상으로는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근무 관련 사안 및 운영방안,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관련 현황 및 정책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
4단계	조사 실시	⇔	·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분석대상 144명) · 문화관광해설사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실시 (23명)
5단계	조사 결과 분석	⇔	· 결과 분석 및 집필
6단계	정책 제언	⇔	· 정책 제언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이해와 현황

1.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입배경 및 개념

-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및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규모 행사를 맞이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양성하게 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001년 1월에 전달하게 되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여 자원봉사자라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 하에 있는 다양한 해설사들이 있음. 즉 문화관광해설사 외에도 숲해설사,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세계지질공원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 하에 있는 다양한 해설사는 그 소관부서에 따라 지위 및 수당이 다름.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세계지질공원해설사,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작가의산책길해설사의 지위는 자원봉사자이며, 1일 활동비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교통비는 추가 지급됨. 이에 반하여 숲해설가, 자연환경해설사,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위에 있음.

2. 전국 및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 전국문화관광해설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가입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수는 3,0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전국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이 외의 16개 시도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문화관광해설사는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2020년 전체 인원 수는 210명으로 여성은 159명(75.7%), 남성은 51명(24.3%)임. 제주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중 여성의 비율이 75.7%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2020년 활동 인원 수는 총 186명 중 여성은 138명(74.2%), 남성은 48명(25.8%)임.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를 2020년에는 총 33군데의 관광지에 186명을 배치하였음.

3. 전국 및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관리

가. 전국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방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해마다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기초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를 해오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과정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 양성 과정으로는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양성교육 과정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선발함. 이후 선발된 자에 한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시연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자격을 얻게 됨.
- 특별시·도·광역시·자치단체의 장은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함. 또한 보수교육 과정 대상자들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신규양성교육 과정과는 차별화되게 기획 및 운영하여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은 기본 소양 및 전문 지식, 현장 실무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중에 총 2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해서 해마다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는 “①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②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③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 설문조사 계획, ④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개발, 장애인 유형별 맞춤 관광해설 프로그램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지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 대기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나.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방침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 및 활동 시간, 활동비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는 자원봉사자임.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는 모두 활동시간이 10시부터 17시이고, 7시간을 활동하고 있음. 해설 활동 후에는 1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해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은 1개월에 6~15일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 범위 내에서 활동한 경우에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1일 7시간 활동 기준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활동한 날에 대하여 1일 기준 정액 2,400원을 지급함.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관광해설사 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중 근무수칙을 위반한 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 및 취소와 같은 활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원봉사 활동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등임. 이 외에도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에도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등임.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교육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은 먼저 신규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서류 및 면접 시험을 통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신규양성교육 과정의 이수자를 대상으로 이론 시험과 현장시연평가를 실시하고 통과된 자를 최종 문화관광해설사로 정함.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양성교육은 주로 제주관광대학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이루어져왔음. 2017년 신규양성교육은 19일 동안 6시간씩 총 114시간이 이루어졌으며, 20일째에는 이론시험 후 수료식을 진행하였음. 현장 수업은 6일에 걸쳐 총 34시간을 실시하였음.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은 2019년까지는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제주관광대학 등에 위탁하여 수행되어 왔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교육을 대체하였음.
-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은 1년에 1회 실시되며, 문화관광해설사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경우에는 2일(16시간)을 교육 받으며, 10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경우에는 3일(24시간)을 교육 받고 있음.

제3장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

1.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인식

-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로는 '제주도의 역사 및 문화를 알고 싶어서'가 36.1%로 가장 높았음.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싶어서'가 23.6%, 세 번째로는 '근무활동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자녀 돌봄 또는 다른 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서 등)'가 10.4%, 네 번째로는 '경력단절 후 사회활동 재진입이 용이하여'가 9.7%로 높게 나타났음.
-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한 평균 연수는 약 10년 5개월 정도였음.
- 문화관광해설사 중 수입이 있는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는 57.6%로 나타났으며, 병행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살펴보면 농업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교육 강사 등 교육 서비스업이 16.3%,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이외의 해설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각각 13.0%로 높게 나타났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이다'는 평균 3.67점,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이다'는 평균 3.40점이 나와 현재 지위가 자원봉사자임에도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수준도 꽤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앞으로 어떤 지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직업 개념으로의 일하는 자(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로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자가 70.1%였으며, 현재 그대로 자원봉사자 지위로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자는 29.9%였음.
- 문화관광해설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하여 '해설 내용의 전문성' 및 '해설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력'이 각각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세 번째로는 '태도 및 자세'가 16.8%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5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평균은 2.44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문화관광해설을 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한 정도는 평균 2.33점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을 할 때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해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2.81점이 나와서 보통보다 약간 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음.

2.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평균 11.1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근무활동비는 평균 546,000원, 월 평균 해설 수는 평균 31.7회로 나타났음. 또한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평균 10.5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근무 활동비는 평균 517,000원, 월 평균 해설 수는 평균 16.5회로 나타났음.
-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받는 활동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1.94점으로 나와서 다소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현재 월 15일 이내로 활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2.35점으로 나와서 다소 적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가족돌봄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절'이 되는 경우는 12.5%, '가족돌봄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한 외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9%로 나타났음.
-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는 정년이 없으나 앞으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 3.83점이 나와서 다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으로 75.5세가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관광객으로부터의 성희롱, 폭력, 무례한 행동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대기장소는 쾌적하고 공간이 충분하다'에 대해서는 평균 3.1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기하는 시간 동안 해설 외의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평균 1.78점, '관광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과 같은 언어나 행동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평균 1.90점, '관광객 등으로부터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평균 1.90점, '관광객 등으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평균 1.88점, '해설 근무를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평균 2.08점으로 나와서 별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성차별적인 경험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96.5%, 있는 자는 3.5%로 나타나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시 성차별 경험은 매우 적게 나타났음.

3.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정

- 문화관광해설을 하면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관광지에 대한 전문 해설 자료의 부족’으로의 어려움은 평균 2.55점, ‘해설 내용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평균 2.42점, ‘공식적인 표준 해설 매뉴얼의 부재’는 평균 2.81점, ‘수요자(관광객)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평균 2.21점, ‘해설 장소의 위치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은 평균 2.15점, ‘해설 내용과 관련하여 상의할 수 있는 전문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평균 2.76점, ‘휴식 없이 계속되는 해설 요청’으로 인한 어려움은 평균 2.44점이 나와 보통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0점,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1점으로 나타나 두 교육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 정도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 및 평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적정하거나 충분한지에 대하여 보통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해설을 하는데 충분하다’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 시간은 충분하다’에 대해서는 평균 3.24점, ‘교육 시기는 적정하다’는 평균 3.24점이 나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해설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평균 2.88점이 나와 보통보다 약간 적게 나와 다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평균 3.17점, ‘해설 시연의 기회 및 교육은 충분하다’는 평균 3.24점, ‘교육 내용의 깊이는 충분하다’는 평균 3.08점, ‘교육 프로그램 강사진은 전문적이다’는 평균 3.33점, ‘교육의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균 3.24점이 나왔음.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제주의 자연환경(생태, 지질 등)’ 및 ‘한국 및 제주의 역사(신화), 문화, 풍속’이 필요하다고 15명이 응답해서 가장 많았으며, 세 번째로는 ‘제주의 역사적 사건(제주 4.3 사건 등)’이 11명으로 많이 나왔음.

4.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책 수요

- 문화관광해설사의 발전 및 여성 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문화관광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가 평균 4.41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뒤로는 '안전을 위한 환경 및 조치 마련(술 마신 관람객에게는 해설 불가 조치 등)'이 평균 4.25점, '근무환경 개선(대기공간 등 개선)'은 평균 4.18점, '문화관광해설의 예약제 도입'은 평균 4.17점, '근무조건 개선(수입,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개선)'이 평균 4.14점,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가입 지원' 및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스터디 그룹 지원, 해설지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이 각각 평균 4.11점, '공식적인 표준 해설 매뉴얼 및 자료 제공'이 평균 4.07점으로 높게 나타나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 외에도 '자원봉사에서 직업 차원으로의 전환'이 평균 3.94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무지 조정'이 평균 3.81점, '제주 여성 역사문화 해설 콘텐츠 개발'이 평균 3.78점, '원하는 경우 오전이나 오후 근무 제공'이 평균 3.77점으로 나와 다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식적인 표준 해설 매뉴얼 및 자료 제공' 및 '제주 여성 역사문화 해설 콘텐츠 개발', '원하는 경우 오전이나 오후 근무 제공'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는 40대 이하가 '안전을 위한 환경 및 조치 마련'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4장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관계자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 여성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경험 및 정책 수요

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계기

- 많은 여성 문화관광해설사인 참여자들 중 이전에 직장이 있던 자는 경력단절 및 퇴직 이후, 전업주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사회활동에 대한 갈증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참여자들 중에는 결혼과 육아에 의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결혼한 여성이란 이유로 일순위로 구조조정되면서 사회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음.
- 일부 참여자들은 계약직이나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어려운 직업군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게 됨.

- 앞서 제시된 사안들 외에도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다른 해설사들이 하는 해설을 들으면서 해설하는 활동이 전문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 지원을 결심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았음.

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

- 여성 문화관광해설사인 참여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좋은 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가사 및 돌봄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꼽았음. 근무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사, 집안일 등 가사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또한 40대 초반인 참여자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시간대가 아이를 키우면서 근무하기에 좋아서 만족하고 있었음.
- 문화관광해설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전문가로서 발돋움해야 하는데 이런 준비과정들이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좋다는 경우가 많았음.
- 일부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되고, 가족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하였음.
-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생 직업으로 생각되고, 퇴직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좋다고 하였음.

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애로점

- 일부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근무 상황 등을 보면 자원봉사라기에는 지나치게 활동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많은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대기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또한 별도의 문화관광해설 대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근무지는 별로 없다고 하였음.
- 일부 참여자들은 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음. 휴식 없이 이어지는 해설에 심신이 지치기도 하고, 이념 차로 인한 해설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고 하였음.
- 원치 않는데 사진에 찍히거나, 음주 후 방문한 관광객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불쾌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음.

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현실과 개선요구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의 내용 및 강사진이 매해 반복되어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었음. 참여자 중에는 교육을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음.
- 일부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평소하는 말이 성차별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실내에서만 받는 교육이 아니라 제주의 새로 개발되는 관광지와 유적지 등을 찾아가 보는 등 현장 교육이 추진되었으면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 교육이 아닌 온라인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교육은 콘텐츠가 매우 다양하여 여러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음.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공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음.
- 기존 보수교육에서 3~5분 정도의 시연을 문화관광해설사 전원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음. 많은 참여자들은 해설 시연 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해설 시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가 보는 데서 3분이든 5분이든 해설 시연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 5분은 시연하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해설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평가를 받거나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참여자들 등이 있었음.

마. 여성 문화관광해설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간에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일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휴가를 쓴다든지 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임. 이에 일부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가사 및 돌봄 등 필요 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차 제도가 있으면 하고 바랬음.
- 문화관광해설사가 봉사자로서 근무를 한다면 근무 시간을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였음.
- 술을 마시고 와서 해설을 요청하거나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는 경우처럼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해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활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현재 제주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는 별로 없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는 관광지에 가능하다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너를 만들어 해설과 병행했으면 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원하는 관광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나 확대될 관광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음.

바. 문화관광해설사의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 근무지 별로 해설 요청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음. 도에서는 근무지 상황을 파악하고 반영하여 해설사들을 배치했으면 하였음. 또한 참여자 중에는 원거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내권 근무보다 교통비를 더 지급해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등 별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일부 참여자 중에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 제한이 일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이 있었음.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해설을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연령으로 해설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2. 전문가가 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 본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 많은 전문가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직이지만 그럼에도 일일 활동비가 5만원인 것은 너무 적으며, 복리후생비가 없는 등 다른 처우도 열악한 편이라고 하였음.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에 비하여 활동비와 처우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음.
- 일부 전문가들은 문화관광해설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해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일 때가 있다고 하였음. 즉 문화관광해설사마다 해설 역량에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부 해설사의 경우에는 현 장소에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관광객의 이해에 부족한 경우가 있거나 관광객의 질문에 엉뚱한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음.

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 30, 40대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육아를 병행하게 되는데, 월 최소 근무일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여성 문화관광해설사의 비율이 70% 이상 될 정도로 많은데 여성 해설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편으로 보였음. 따라서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강화 및 호루라기 제공 등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하였음.
- 전문가들 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자란 현재 지위를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도 여성 일자리 창출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하였음. 즉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 해설사로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일자리로 변경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자긍심을 줄 수 있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음.
- 새로운 문화관광 해설 코스를 개발하거나, 역사문화 투어 운영, 관광지에 체험 코너 마련 등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기존의 관광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관광지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확대하여 수요 자체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음.

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 방안

- 문화관광해설사들은 활동비가 매우 적고, 복리후생비도 제공되지 않으며 여타 복지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여성 일자리가 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활동비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에 처우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음.
- 현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공무원이 맡아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새로운 제도 운영 및 시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과적인 관리 및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는 평가나 인센티브가 없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마다 해설의 전문성에 차이가 나며,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해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선행되어 해설의 일정 수준의 질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음. 또한 해설 수요자와 관리자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현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에서 해설기법, 관광업에 대한 이해 등 관광 실무와 관련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역사만이 아니라 자연 등 다양한 분야와 제주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보수교육 시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령 및 활동기간 제한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음.

제5장 종합적 논의 및 정책 제언

1. 종합적 논의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종합적인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문화관광해설사는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인 활동으로 진입하고 근무하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필요를 위하여 교육의 개선 및 평가 실시 등의 요구가 크게 나타났음. 넷째, 문화관광해설사의 발전 및 여성 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자원봉사에서 직업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2. 정책 제언

-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방안으로 2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5-1>과 같음.

<표 5-1>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구분	정책 과제	추진주체	추진기간	
			단기	지속
1. 문화관광해설사 지위의 단계적 검토	• 문화관광해설사 지위의 근로자 변경 관련 단계적 검토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2.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활동비 및 교통비에 대한 인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무급휴가 및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			
	• 대기실의 확보 및 개선			
	• 안전한 활동 환경 제공			

구분	정책 과제	추진주체	추진기간	
			단기	지속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의 필요			
	– 온라인 및 현장 교육의 필요			
	– 해설 시연 등 해설기법 및 해설 태도 교육 강화			
	• 공식적인 표준 문화관광해설 매뉴얼 및 자료 제공			
	• 문화관광해설사의 연구 지원			
4.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 평가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해설에 대한 정년제 또는 활동기한의 도입			
	• 효율적인 해설사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홍보 강화			
5. 조례 개정 및 운영 계획 보완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 개선사안 추가			
6. 다양한 문화관광해설 사업 개발 및 확대 방안	•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수요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해설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역사문화해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배치 관광지의 발굴 및 확대			
	• 다양한 전문 해설 연계 및 활성화 지원			
	• 제주 여성 역사문화 해설 콘텐츠 및 여성역사문화관광지 개발			



발표 3

제주지역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및 활용방안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지역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이해응(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주 일반 공무원의 기본 다문화감수성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제주 지역 전반의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한국은 1990년대부터 외국인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2018년 기준으로 200여만 명에 달하고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함. 제주지역은 201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2018년 현재 31,032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충남(5.4%), 경기(5.1%) 다음인 세 번째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많은 지역이 됨.
- 그동안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일반인, 교육자, 시설종사자, 직장인, 청소년, 경찰, 군인, 유아동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강사'풀을 제공하고 있고, 법무부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개설대학(2019년 현재 47곳)을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기존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츠가 단일 국민정체성을 넘어서서 다양성, 공존, 공생, 배려, 이해 등 사회적 가치와 다문화(이주민)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결혼이주의 여성화', '노동이주의 남성화' 라는 젠더화된 이주방식 및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성별화된 관계 맺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부장적 문화를 강요하는 등 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가 표방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도시'의 가치방향, 산업구조상 타 지역에 비해 공무원 비중이 크고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감수성은 경찰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만 해당되기보다 전반적인 행정 업무 진행시 글로컬(glocal)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기본 소양으로 요구되고 있음.
- 제주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은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고,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호남/제주지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전국 및 제주지역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현황
-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구성 틀 제시
-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구성 내용
 - 제주의 이주 역사를 성인지적 다문화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기
 - 제주지역 국내·외 이주민 현황 및 정책을 성인지적 다문화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기
 - 공무원 업무 특성과 연결하여 다문화감수성 함양 실천 방법 제시
-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콘텐츠 활용 방안 제시

나. 연구 방법

- 다문화 교육 및 콘텐츠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중앙 및 제주지역 다문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현황 조사
 - 대상 : 정부 및 제주지역 내 다문화 교육 수행 기관
 - 방법 : 기관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정리
-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학습 자료 조사 및 분석
 - 대상 :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관련 사이트 및 언론보도
 - 방법 : 콘텐츠 구성 주제 별 관련 정책, 문헌 연구 자료 조사 및 정리
- 콘텐츠 구성 관련 대상별 FGI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FGI 내용 : 콘텐츠 구성 틀, 주제별 내용에 대한 심층 논의
 - FGI 대상 : 전문강사, 공무원, 관계자 등 20명 이내
 - 자문 내용 : 콘텐츠 개발 방향, 콘텐츠 결과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자문 대상 : 다문화 및 성인지정책 관련 전문가 20명 이내

제2장 다문화 교육 현황

1. 중앙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현황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¹⁾)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누리배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과 전문강사뱅크, 다문화인식개선 콘텐츠 자료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다누리배움터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신청방법과 ‘온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음.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은 연중 상시로 개설되며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사회 정책과 현황’, ‘다문화사회에서 대상별 특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강사 연계 신청과 무료강의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온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은 다누리배움터에 접속하여 희망과정을 수강신청 하고 온라인 학습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온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츠는 일반과정, 교육자 과정, 시설종사자과정, 직장인과정, 청소년과정(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경찰과정, 군인, 유아동 등 대상별 차시별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2. 제주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현황

□ 제주지역 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200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전국 초·중·고교원 양성대학 공모·평가를 통해 교육대학의 다문화교육 강좌를 지원해왔음.
- 제주대학교는 교육대학의 교직 필수 교과목과 교양교과목으로, 제주한라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과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제주관광대학교는 항공서비스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제주국제대학교는 언어치료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양학과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1)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937호, 2008. 3. 21.,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2년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고,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교직원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제주형 '노뎃돌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이 있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 사업이 있으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탐라교육원은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중 생활인성지도 영역에서 다문화/세계시민 관련 3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대상 오프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으로 '다문화 이해 과정'이 개설되고 있고, 교육대상은 자치경찰 및 다문화 관련 부서로 한정되어 있어, 1년 1회 15명으로 매우 제한적인 인원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자체 일반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은 대부분 사이버교육(2018년 16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누리배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은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
- 제주지역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제주글로벌센터, 국제가정문화원, 제주이주민센터, 제주 서부다문화가족센터, 관련 복지관 및 NGO 등)에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보조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2020년부터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사업으로 추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등 사업이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영역에서 '대상별(공무원, 도민 등)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성평등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지만, 2019년, 2020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지 않아 향후 추진이 필요함.

3. 소결 및 시사점

- 중앙정부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온·오프라인의 다각적인 교육 방법과 대상별 차시별 풍부한 영상 콘텐츠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이해 중심의 교육 콘텐츠라는 점과 다문화가족 중심의 교육 콘텐츠라는 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제주지역 대학교 및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 2000년대 말부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다각적인 자료를 축적해왔다고 볼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자치경찰 및 다문화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행정 공무원의 다문화 교육은 사실상 자각에 맡기고, 실질적 점검과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공무원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내실화 및 콘텐츠 개발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도 2010년 초부터 기본계획 과제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보조금 지원 1년 단위의 사업 형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3장 콘텐츠 개발 방향과 구성 개요

1.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 콘텐츠 개발 방향, 구성틀, 주제 선정, 내용 구성, 콘텐츠 결과물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수요자 대상별, 다양한 관계 전문가 총 35명 대상으로 6회의 전문가 FGI·자문 회의를 추진함.
- 진행 : 2020년 8월 2주 ~ 10월 3주까지 1단계는 개발 방향, 2단계는 콘텐츠 구성 초안, 3단계는 콘텐츠 결과물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함.

나. 조사 결과

1)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첫째,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콘텐츠 자료 중심으로 구성. 둘째, 일반 공무원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이해 수준으로 구성. 셋째, 인식개선 중심의 주제 위주로 구성.

2) 콘텐츠 구성 초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첫째, 관련 법 제도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중심으로 구성. 둘째, 전문강사를 위한 풍부한 문헌자료 제시 필요. 셋째, 주요 고정관념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개선 중심으로 구성 필요. 넷째, 인권을 기본 바탕으로 세부 내용 구성.

3) 콘텐츠 결과물 초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첫째, 인권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강조 필요. 둘째, 주제별 세부 내용의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 내용 보완, 긍정적 방식의 문제 제시. 셋째, 콘텐츠가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강사 양성 필요.

2. 콘텐츠 개발 방향

가. 콘텐츠 개발 목표 및 대상

〈표 1〉 콘텐츠 개발 목표 및 대상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제주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 함양 콘텐츠 개발 • 공무원 일상 업무 중 다문화감수성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행정 공무원 • 활용 대상 : 다문화 전문가 강사 및 성평등 전문가 강사 • 기타 대상 : 한국/제주 다문화사회 이해도 향상을 위한 모든 주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 개발 • 국내외 이주를 포함하는 콘텐츠 구성 • 제주 다문화사회 이해 기본 지식 및 인식 개선 중심의 주제 선정

나. 콘텐츠 개발 방향

1)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 개발

-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觀點, gender perspective)이란, 사회적 현상이나 정책을 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주민의 이주방식, 정착과정, 가족관계 형성, 노동시장 진입 등 전반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권력관계가 어떻게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함.

2) 국내·외 이주를 포함한 콘텐츠 구성

-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도외 '육지' 인구의 유입과정이 제주의 인구구성 및 다문화적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 제주사회에서 '정착주민'이라는 용어는 국제이주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주민 집단을 가리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외국인 주민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투자이민 신분으로 제주에 정착하면서 또한 제주의 인구구성 및 다문화적 인식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침으로, 국내·외 이주민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3) 제주 다문화사회 이해 기본지식 및 인식 개선 중심의 주제 선정

- 본 연구는 제주 공무원의 다문화사회 이해 기본 함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국 및 제주의 다문화사회 이해 기본지식 자료를 제시하였고, 기존 '차별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지식과 생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제 자료, 이런 인식과 이해로 인한 차별적 행위(행동)를 시정할 수 있는 주제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함.

3. 콘텐츠 구성 개요

가. 콘텐츠 영역별 주제

- 상술한 콘텐츠 개발 방향과, 일반 공무원의 다문화감수성 기본 소양 목적에 따라, '제주의 이주 역사', '국제결혼 관련 정책과 제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과 제주 이주 노동자', '재외동포법과 제주 외국국적동포', '행정체계와 공무원의 다문화감수성 실천' 등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으로 5개 영역별 주제를 선정함.
- 각 영역별 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책과 현황, 제주의 정책과 현황, 용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고정관념 깨기 등 흐름으로 구성함.

나. 콘텐츠 구성 개요

- 콘텐츠 구성은 키워드, 학습목표, 학습내용, 정리하기, 생각해볼 거리, 참고문헌 등 6개 범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 콘텐츠 구성 틀

구분	내용
키워드	• 해당 주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단어로 구성함
학습목표	• 학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첫째, 주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둘째, 성인지적 다문화 관점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임.

구분	내용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현황과 관련 정책, 제주지역의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 핵심 인식 개선 내용 혹은 실천 내용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함 • ‘제주의 이주 역사’의 학습내용은 제주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영향을 미쳤던 이주의 역사적 흐름에 방점을 두고, ‘행정체제와 공무원의 다문화감수성 실천’의 학습내용은 공무원이 인지해야 할 구조적 실천적 내용에 방점을 둠.
정리하기 (성인지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 서술했던 분석 내용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구성함
생각해볼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을 정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 • 관련 고정관념 혹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식 및 본인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토론 거리를 제시함으로써 풍부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인식 개선 유도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에서 서술하거나 분석했던 내용 중 인용한 참고문헌 중심으로 제시함 • 기타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도서, 논문 등을 제시함

제4장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1. 제주의 이주 역사에 대한 이해

가. 학습개요

- 학습목표 : 첫째, 제주의 이주 역사에 대한 이해. 둘째, 제주의 역사를 성인지적 다문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함.

나. 학습내용1: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 제주이주의 역사는 탐라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에서 시작되며, 삼성신화의 벽랑국 삼공주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탐라는 원초적으로 다문화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학습내용2: 고대, 근대시기 지배와 피난처로서 제주 이주

- 고려 말 제주에서 진행된 이주역사는 몽골 이주로 특징지어지는데, 고려시대 몽골의 100년 지배는 제주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몽골인이 제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제주 여성과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은 유·무형적 문화유산으로 제주 곳곳에 남아있음.

- 조선시대는 국내이주, 즉 제주로 유입되는 유배인과 제주 밖으로 유출되는 제주인의 이주가 형성된 점이 특징적인데, 조선시대에 중죄를 지닌 죄인들의 유배지인 제주에는 유배인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만 약 2백여 명이 제주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됨.
- 일제강점기 제주는 극심한 공출, 강제동원, 징병 및 징용을 당했는데, 일제강점기 말에는 7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제주에 주둔하면서 결7호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해방과 함께 제주주둔 일본군이 물러난 제주는 일본노동자로 나갔던 제주인들의 귀환, 제주4·3사건으로 군경 및 이북5도 출신들의 유입,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육지피난민의 유입으로 특징지어짐.

라. 학습내용3: 산업화·개발 시기 국내이주자의 제주 노동이주

- 1960, 70년대 제주도 개발 붐이 일면서 정부주도의 관광개발과 감귤산업 등 특작농업의 성공으로 제주는 강력한 국내 노동이주 열풍을 경험하였는데,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서울지역 등에서 제주로의 유입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1980년 전후부터는 서울지역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율은 줄고 인천·경기지역이 제주인구의 주요 유입지로 부상함.
- 제주로의 노동이주 열풍 속에서 1960, 70년대 광주·전남지역 출신 이주자들의 밀집지역이 생겨났고, 전남 해남 출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남촌’ 혹은 ‘전라도동산’이라 불렀는데, 이들의 집중거주지는 영구적인 정착지라기보다 임시거주지였음.

마. 학습내용4: 2000년 이후 국내이주자의 새로운 이주 열풍

- 2000년 이후 귀농·귀촌인구 및 거주 희망 은퇴자 증가와 더불어 관광개발, IT기업의 이전, 국제학교 유치와 투자유치에 따른 이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제주이주 열풍이 일어났는데, 이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이주 열풍과 구별해 ‘신 이민시대’라고 지칭됨.
- 새로운 이주열풍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주민 지원정책이 형성되는데, 이는 크게 귀농·귀촌 지원과 일반 정착 이주민 지원, 창업 관련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됨.
-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이주민의 제주 사회 적응과 정착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7년 7월 2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었고,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2018~2021)’을 수립함.

바. 정리하기

- 새로운 문명의 전수 주체로서 벽랑삼공주, 이주민에 포용적인 제주사회
- 제주 고대, 근대, 현대 시대별 이주역사 배경과 제주 유·무형 '문화유산'
- 신 이민시대, '제주안의 다문화', 다양한 문화의 공존사회 제주

사. 생각해볼 거리

- 각 시대별 제주 이주 배경 및 '육지 것'으로 부르는 것의 배경에 대한 생각 공유

2. 국제결혼 관련 정책과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가. 학습개요

- 학습목표 : 첫째, 국제결혼 관련 정책 및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둘째, 성인지적 다문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함.

나. 학습내용1: 국제결혼이민자의 젠더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 2019년 현재, 한국의 전체 결혼 건수 중 10쌍 중 한 쌍(9.9%)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에서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국제결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2019년 현재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국제결혼의 74.8%를 차지하지만, 1990년 까지만 해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86.9%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1990년까지 한국에서 국제결혼가족이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국제결혼한 여성이 주로 남성배우자의 나라로 국제 이동을 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결혼제도의 초국적 성역할 규범 및 남성중심의 가족문화규범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의 부계(父系)혈통 중심의 법·문화제도와 밀착되어 있음을 의미함.
- 지방정부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정책, 무허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리성 목적의 운영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 비율이 급증하였지만, '부정확한 정보 제공', '언어 통번역 문제', '예치금 문제', '영리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제결혼 상품화 광고, 인신매매성 인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 2010년, 2018년 등 개정을 통하여 정보 제공, 인권침해 광고 등에 대한 법률 규제를 강화.
 - 인권위, "ooo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의 현수막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결정. 2010;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 온라인 영상광고 문제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전체 영상광고물 일제 점검". 2018. 7.

다. 학습내용2: 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 제주 '국제결혼이주의 여성화'

○ 2019년 현재, 제주지역 전체 결혼 건수 중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12.6%)으로 전국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임. 국제결혼의 성비를 보면 제주 한국인여성은 1993년 63.1%에서 2019년 11.6%로 줄어든 반면, 제주 외국인여성은 1993년 34.9%에서 2019년 88.4%로 급증하여 전형적인 '국제결혼이주의 여성화'를 보여주고 있음.

- 전국과 5~10년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전국보다 더 고도의 '결혼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제주 국제결혼이민자의 가족 구성 및 3중 노동 경험

○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적 참여율은 한국에서 가장 높고, 제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조되고, '안거리 밖거리' 문화를 통해 고부간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오히려 더 '가부장적인 성별 문화'를 강조하는 측면이 발견됨.

○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돌봄노동과 임금노동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이중고라고 표현한다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워야 하는 '학습노동'이 추가되어 삼중고라고 표현할 수 있음. 2018년 제주 결혼이민자 비취업자 중, 일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 양육(57%), 한국어 공부(48.5%), 한국말이 서툴러서(22.4%)로 아이 돌봄노동과 학습노동의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음.

□ 제주 국제결혼이민자의 글로벌한 다문화 자원

○ 제주지역 국제결혼이민자 출신국가는 베트남(29.5%), 중국(18.8%), 중국(한국계)(11.4%), 필리핀(11.0%) 등 20여 개의 다양한 나라가 있으며, 그들의 본국과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글로벌한 다문화 자원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단순한 언어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본국과 한국에서의 성역할 인식, 다인종 삶의 경험, 노동경험, 한국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경험 등에 대해 경청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서로의 파트너십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 '2018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가 전체 149개국 중 115위로, 중국·베트남·태국·일본·캄보디아·몽골 등의 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라. 학습내용3: ‘다문화가족’과 ‘글로벌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 ‘다문화가족’ 용어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전국 2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생기면서 고착화된 법적 용어로 ‘한국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동남아 출신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부부+자녀 가족’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고, ‘글로벌가족’은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 외국인배우자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국제적 경제지위가 높은 나라 출신의 이주민 가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제한하였기에 매우 협소한 다문화가족 이미지가 생성·확산됨. 한국인 여성 다문화가족, 한부모 다문화가족, 부부 모두 동포출신 다문화가족, 부부 모두 외국인출신 다문화가족, 1인 이주민 가구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고, 제주사회의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가족정책과 통합하여 대응할 필요 있음.

마. 정리하기

- 국제결혼을 둘러싼 법제도와 초국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이해
- 제주 ‘국제결혼이주의 여성화’, ‘글로벌 주체’, ‘3중 노동경험’에 대한 이해
- 협소한 ‘다문화가족’의 의미를 벗어나 다양한 ‘국제배경 가정’에 대한 이해

바. 생각해볼 거리

- 한국/제주는 왜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이주민은 왜 한국/제주를 필요로 하는지, 서로에게 기여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기

3.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과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가. 학습개요

- 학습목표 첫째,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 및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둘째, 성인지적 다문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함.

나. 학습내용1: 외국인근로자의 젠더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 ☐ 노동력 송출국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국으로서 한국
- 한국은 1902년 하와이 농업노동이주, 1962년 해외이주법 공포, 1963년 라틴아메리카 농업 이민, 1960-1970년대 독일 광부 및 간호인력, 중동 건설인력 등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여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한 전형적인 송출국이었음.

- 한국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소위 3D 업종에 대한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을 보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경험함. 이를 계기로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1998년 연수취업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노동력을 도입하여 아시아의 대표적인 노동력 유입국이 됨.

□ 외국인근로자의 젠더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은 일정한 계약기간에 제한된 직종과 특정한 기능부문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주로 한국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국제 성별분업 현황을 보여줌.
- 201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민자(귀화자 포함) 총 86만 8천 명 중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39.4%, 단순노무종사자 33.1%, 서비스판매종사자 14.0% 순임. 그런데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84.1%가 남성이고, 단순노무종사자의 61.8%가 남성, 서비스판매종사자의 72.2%가 여성임.

다. 학습내용2: 제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 제주 '노동이주의 남성화'

- 2018년 11월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주로 E계열) 소지자 총 10,040명 중 남 7,486명(74.6%), 여 2,554명(25.4%)으로 제주 '노동이주의 남성화' 현상을 이루고 있고 이들은 주로 농축산업 등 비전문취업비자(39.5%), 어업 등 선원취업비자(19.3%), 국제학교 교사, 요리사 등 특정활동비자(35.8%)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 3D 업종의 인종·성별분업

- 제주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보면 업종의 극단적인 인종·성별분업 현상을 보임. 이런 극단적인 인종 성별 분업 현상은 외국인근로자 유입 단계부터 초국적 성별 분업 구조를 보여주며, 제주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별화된 고정관념이 강화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
- 2018년 전국의 외국인근로자 총 528,06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4.1%, 베트남 8.8%, 캄보디아 7.1% 순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제주에는 외국인근로자 총 10,040명 중 중국 30.4%, 인도네시아 15.7%, 베트남 12.2%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제주 비전문취업비자 3,965명 중 남 96.8%, 여 3.2%, 선원취업비자 1,936명 중 남 100.0%, 여 0.0%, 특정활동비자 3,592명 중 남 37.2%, 여 62.8%로 농축산업, 어업 등에 절대다수가 남성 노동자, 국제학교 교사, 요리사 등에는 여성 노동자가 더 종사할 것으로 보임.

□ 제주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 및 공생에 대한 이해

- 제주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중산간 지역 중심의 외진 농축 산업 현장에서 일하여 육지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고립되는 경향이 있음. 고용주 또한 이주 노동자를 제주 농축산업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종사해줄 것으로 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학습내용3: “노동자를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

□ 이주노동자의 산재·자살과 삶

- 최근 몇 년 간 제주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 산재 상담 사건 등은 이주노동자의 물리적 정신적 고립과 삶의 기반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이주노동자 유서.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 2017. 8.

□ 이주노동자와 가족

- 외국인근로자 유입 정책은 가족 동반을 허락하지 않음에도, 이주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여러 가지 통로로 가족 구성의 필요가 높아지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필연적 현상임.
 - 제주민의 해외 이주 정착과정에서도 노동이주로 시작하여 가족이 정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력을 담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총체적인 ‘인간’이고, 성별화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마. 정리하기

- 외국인근로자 유출/유입을 둘러싼 법제도와 초국적 노동성별분업에 대한 이해
- 제주 ‘노동이주의 남성화’, ‘3D 업종의 노동주체’, ‘여성노동자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
- 외국인노동자의 ‘인간적 삶’의 기반에 대한 인권적 사유방식에 대한 이해

바. 생각해볼 거리

- 한국/제주는 왜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이주노동자는 왜 한국/제주를 필요로 하는지, 서로에게 기여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기

4. 재외동포법과 제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이해

가. 학습개요

- 학습목표 첫째, 동포 관련 정책 및 제주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이해. 둘째, 성인지적 다문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함.

나. 학습내용1: 재외동포의 친족/연령/젠더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 외국국적동포의 친족/연령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 1980년대 한민족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1988년 대한민국 올림픽대회, 냉전체계가 와해되고 1992년 한중수교에 따라, 한국은 40세 이상의 중국국적 동포(한국계 중국인)에게 친척방문을 허가하여, 중장년 이상의 중국국적 동포 인력들이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유입됨. 그들은 체류 기간을 과도하여 음식업, 건설업 인력으로 정착하게 됨.
 - 중국국적 동포가 한국 내 기타 외국인주민보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고국'에 대한 같은 민족으로서의 기대와, 실제 '불법체류신분화'되는 간극에서 오는 괴리 때문으로 해석됨.
- 외국국적동포의 젠더/다양화된 이주방식과 정착
 - 한국의 1990년대는 중국국적 동포의 '결혼이주의 여성화'와 '노동이주의 남성화' 현상이 주를 이뤘고, 현재도 전국적으로는 외국국적 동포 인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제한하여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계 CIS 지역 고려인'은 배제되었지만, 위헌 소송을 통하여 2004년에 포함됨. 점차 '결혼이주의 여성화'와 '노동이주의 남성화'된 이주방식은 사라졌지만, 음식업, 간병인, 가사 등 서비스업에는 여성이, 건설업, 기계조립 등에는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직종성별 분업은 여전하고, 고학력 전문직 동포들은 성별화된 현상이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하고 있음.

다. 학습내용2: 제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이해

- 제주 외국국적동포의 75%이상은 중국국적 동포
 - 2019년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총 3,519명 중 중국국적 동포가 2,645명으로 75.2%를 차지하고, 그 다음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계러시아인, 뉴질랜드, 일본, 영국, 독일 순임. 전국도 74.2%가 한국계 중국인(중국국적 동포)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미국, 한국계 러시아인,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순임.

□ 제주 중국국적동포는 주로 여행업, 건설업 등에 종사

- 제주에 정착한 중국국적 동포는 주로 여행사, 음식점, 면세점 등 자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 중국국적 동포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좀 더 낫다고 느끼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정보 접근의 취약함을 호소하고 있음.
- “육지에서는 기계 같이 일했는데, 제주에 와서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제주에 와서 경제적 언어문화적 큰 어려움은 없는데 자녀교육 관련 정보나 네트워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에 찾아갈지 모르겠어요...”

라. 학습내용3: ‘교포’와 ‘동포’의 경계

□ ‘교포사절’의 역사적 맥락

- 재일교포, 재미교포 등 ‘교포’는 한국보다 국제 경제적 지위가 높은 나라 출신 동포라는 의미가 내포됨. 1990년대 중국국적 동포가 한국사회 3D업종의 인력으로 정착하면서, 이들에 대한 거부적 의미로 교차로 등 구인광고에 ‘교포 사절’이라는 문구가 통용됨. 중국국적 동포에게 ‘교포’라는 단어는 차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동포’라는 단어는 ‘재외동포’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역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동포’용어의 법적 용어화와 공식사회의 인식 변화

- 재외동포법이 제정 된 후, ‘동포’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한민족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체류 및 취업자격을 보장해주는 법적 용어로 되면서 공식사회에서도 기존 ‘조선족’ 용어를 ‘동포’ 용어로 바꾸는 움직임이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4월 12일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에서 ‘조선족’을 ‘중국동포’로 사용하도록 권함.

□ ‘조선족 동포(중국국적 동포) 여성과 한국의 가사노동자

- 제주지역과는 다르게, ‘조선족 동포’ 여성은 광범위한 연령대에 걸쳐 한국 전 지역에서 입주 가사, 간병, 양육 등 돌봄노동의 공백을 메꾸는 가사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한데, 이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임.
- 이주방식이 결혼이주이건, 노동이주이건, 동포이주이건 상관없이 이주민은 성별화된 국제 분업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특히 이주여성가사노동자들의 불안한 입지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같이 인식할 수 있음.

마. 정리하기

- 재외동포를 둘러싼 법제도와 국적출신에 따른 연령/성별 위계에 대한 이해
- 제주 외국국적동포의 관광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노동주체에 대한 이해
- 한국의 돌봄·가사 노동의 공백과 중국국적 동포 여성의 가사노동자 권리에 대한 이해

바. 생각해볼 거리

- 한국/제주는 왜 외국국적동포를 필요로 하고, 외국국적동포는 왜 한국/제주를 필요로 하는지, 서로에게 기여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기

5. 행정체제와 공무원의 다문화감수성 실천

가. 학습개요

- 학습목표 첫째, 이주민 관련 행정체제의 인권 쟁점 및 제주 이주민 관련 지원체제를 인지함.
둘째, 공무원으로서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실천 내용을 인지함.

나. 학습내용1: 행정체제와 이주민의 인권 쟁점에 대한 이해

- ☐ ‘국민’과‘이주민’의 법적 인격 주체의 간극
 -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 조약의 법적 인격 주체는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법적 인격 주체는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어 국적자와 비국적자의 차별 적용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법적 인격 주체는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등록외국인인 이주민도 포함되어 있음. 행정체제에서 ‘사람’, ‘국민’, 주민’ 적용 과정에 격차와 갈등이 발생하며 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침.
 - 인권위,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2020.6.11.
- ☐ 공무원의 인권 및 다문화감수성 미흡으로 인한 이주민 인권 침해
 - 주로 문화적 무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2003년 네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 공무원의 문화적 무지로 네팔출신 000는 6년 4개월 행려병자 보호시설 등에서 수감생활을 가용 받은 사례), 미등록 이주민을 ‘잠정적인 범죄자’와 동일시하거나, 난민이나 무국적자를 ‘비법한 도망자’로 간주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하는 인신매매성 인권침해 등이 있음.

다. 학습내용2: 제주 이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주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1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등 정부의 법 제정에 따라 발 빠르게 이주민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고, 2019년에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명을 ‘외국인주민 등 지원 조례’로 개정하면서, 외국인을 ‘주민’으로서 포용하고자 하는 제주사회의 진전으로 읽힘. 그러나 실제 지원 체계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 이주민 지원 기관 및 지원 체계

- 제주지역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는 2000년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현 제주이주민센터), 2006년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와 외국인평화공동체, 2007년 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현 제주글로벌센터)와 제주가정문화원, 2009년 이주여성쉼터 쉼만한 물가, 2017년 제주서부다문화가족센터, 2018년 제주난민지원센터 NALZA 2018 등 기관으로 자체 이주민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옴.
- 제주지역 이주민 지원 관련 정부 지정 운영 기관은, 여성가족부 지정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7~현재),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0~현재),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2019),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 프로그램 제주레인보우스쿨(2018년~현재)과 법무부 지정 외국인사회통합센터(2009~현재), 동포대상 조기적응지원센터(2016~현재), 고용노동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2019~현재)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매칭사업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음.

라. 학습내용3: 공직자로서 나부터 다문화감수성 실천

□ 이주민 관련 정책과 현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으로 이해하기

- ‘국제결혼이주의 여성화’, ‘노동이주의 남성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의 초국적 성역할 규범, 국제결혼중개업,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으로 이해할 필요 있음.
- 이주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식은 그들 모두 초국적 노동 주체로서 유입국인 한국의 돌봄 노동, 재생산노동, 3D업종 노동, 외국어 노동, 전문 기술 노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노동자’로 불렸지만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이주민이 갖고 온 선물 (본국에서의 경제활동 역량, 성평등 의식, 다문화·다인종·다민족 경험, 글로벌 인적 자원 등)에 대해 주목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의 위치성을 존중하고 제주 다문화 글로벌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등임.

□ 차별 용어 사용하지 않기, 평등한 용어 사용하기

- ‘혼혈인’, ‘외국인’, ‘다문화인’, ‘불법체류자’,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청소년’, ‘조선족’ 대신, ‘이주민’, ‘미등록체류자/체류기간 과도자’,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중국국적 동포 / 조선족 동포 / 한국계 중국인’ 등 용어를 사용하기.

□ 공직자로서 다문화감수성 실천

- 현직 업무 현장에서 이주민을 대할 때 ‘반말, 무시하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존칭,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하기’, ‘차별적 용어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 서툴다고 손아래사람 취급 않으며, 온전한 성인 인격체로 동등 대우하기’, ‘시혜, 혐오, 적대적 시선으로 보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시선으로 보기’, ‘다문화감수성 교육 적극적으로 이수하기’, ‘이주민 지원 기관을 인지하고, 필요 시 안내하고 연결해주기’ 등임.

마. 정리하기

- 외국인주민의 ‘도민/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 제주 이주민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와 안내 역할
- 본인의 직장 업무 현장에서 다문화감수성 실천 사항에 대한 습득과 실천

바. 생각해볼 거리

- 본 학습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 현황, 관련 용어와 향후 더 탐색하고 싶은 내용, 본인 직장 업무 현장에서 다문화감수성 실천 약속 한 가지에 대해 공유하기

제5장 활용방안과 향후 과제

1. 활용 방안

□ 교육 대상 확장 활용

- 본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는 제주 공무원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이지만, 제주의 이주 역사, 한국/제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한국/제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 한국/제주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제주 공무원의 다문화감수성 실천에 대한 이해 등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기본 지식과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이외의 일반 도민, 교사, 학생,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교수안(강의안) 기초자료로 활용

- 2020년 현재 제주지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강사가 5명 뿐이지만, 의견 조사 결과, 제주 공무원 대상 강의 기회가 매우 적고,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안은 강사 개인적으로 준비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가 부재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콘텐츠는, 우선 다문화감수성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강사의 교수안(강의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 미흡했던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를 보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교육체계와 접목하여 콘텐츠 제공

- 기존 중앙정부의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과 별도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콘텐츠 개발과 전문강사 지원을 하고 있어, 성평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연결성이 미흡하고 서로 단절된 특면이 있음.
 -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결혼이주의 여성화’와 ‘노동이주의 남성화’ 현상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다문화감수성의 통합적인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2020년 9월에 설립됨에 따라, 처음부터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함.
- 제주지역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 과정에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콘텐츠를 영상 자료 혹은 카드뉴스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체계와 접목하여 콘텐츠 제공

- 제주의 ‘국제자유도시’와 ‘성평등 평화도시’ 가치 지향에 걸맞게 일반 행정 공무원의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소양 필요. 현재 제주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치경찰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과정만 개설되고 있는 실정임.
- 인재개발원 2021년도 교육프로그램 제안 (안)
 - 제주 공무원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본 연구 콘텐츠 주제별 1-5강)
 - 현장 체험 (제주 해남촌, 제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 재외동포재단,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

2. 향후 과제

가. 단기 과제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 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연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다문화사회의 질적 내용을 축적해가는 장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유학생·난민에 대한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 본 연구기간이 짧은 관계로 제주지역의 유학생, 난민에 대한 감수성 콘텐츠 개발을 하지 못한 실정임. 제주지역의 유학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2018년 ‘제주 난민사태’를 경험한 지역으로,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나. 중장기 과제

- ☐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시리즈 개발
- 제주형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표준 강의안 개발이 필요함.
- 대상별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시리즈 개발이 필요함.
 - 전문강사(기본, 보수, 심화), 공무원(직렬, 직급별), 관련 종사자(공공기관, 민간, 중간지원 기관), 도민(연령, 성별, 권역별), 학생(유치원, 초중고) 등 대상별 콘텐츠 개발.
- 이슈별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시리즈 개발이 필요함.
 - ‘난민’, ‘계절근로자’, ‘선원’, ‘한부모 이주여성’, ‘유학생’ 등 제주지역에 특히 부각되는 이주민 관련 이슈별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도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전문강사 양성 체계 구축
- 제주지역 다문화 전문강사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 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토론

좌장 문순덕(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1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토론 2 **좌동열**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회장
- 토론 3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토론 4 **현성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권익팀장

토론 1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진 관 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이 연구의 의의와 성과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의 필요성 정리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정리
 -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향후 과제 정리
 - 국내 지역 역사문화 연구 기관 현황 분석
 - 제주지역 역사문화 연구기관 현황 분석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방안 모색

□ 이 연구의 한계점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방안 모호
(조사방법이나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센터 설치의 필요성 불명확
 - 센터의 목표, 기본방향, 역할 애매
 - 센터의 주요사업 제시가 차별적이지 않음.
 - 센터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안) 선명성 부족
 - 향후 과제 제시 미약

□ 이 연구의 아쉬움

- 센터 설치에 관한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과 대안 부재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 지자체 및 도의회 공감대 형성 부족
 - 행·재정적 제도와 절차, 필요요소 검토 미흡
 - 센터 설립을 위한 단계적 전략 부족
 - 센터 설립 지체 혹은 불가능시 대안 부재, 특히 여성사 연구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연구·조사환경 하에서도 제주여성 역사문화연구기반강화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최초의 제안,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함.

토론 2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실태를 통해 살펴본 해설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문

좌 동 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회장)

●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와 실태

-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올림픽에 맞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전국적으로 양성되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3000여 명이며, 제주도의 경우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에 걸쳐 해설사가 양성되었고 현재 200여 명의 해설사가 33곳에서 해설 활동을 하고 있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여건과 보수는 전국적으로 볼 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근무 일 수는 한 달 5일 이상 15일 이내로 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루 7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근무 이외의 시간에도 폭넓은 지식과 관광 관련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쌓은 지식과 경험들은 제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과 해설사업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 이런 가운데 2020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위 및 일자리 창출, 해설사 사업의 확대 방안, 정책 제언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전국 해설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 문화관광해설사의 사업 확대 방안과 이에 따른 콘텐츠 개발

- 정부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였던 초기 기대는 단순한 우리문화유산 알림이 역할이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단순 해설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과 이로 인한 해설사 관련 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

- 해설사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그 성격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일정한 참가비를 받아 이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이다.
- 예를 들면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노래 배우기, 해녀복 만들어 입어보기, 해녀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감귤박물관에서는 감귤빵 만들기, 감귤과질 만들기, 감귤잼 만들기, 감귤과자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김만덕 객주에서는 빙떡 만들기, 상애떡 만들기, 제주 송편 만들기, 순다리 담기, 향토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 제주 목관아에서는 1일 명예 목사 체험, 마패 만들기, 직급에 맞는 옷 입고 사진찍기, 과거시험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사업 확대 방안>

- 특히 제주도는 역사, 민속 관련 유적지가 많고 관광지가 많아 관광 사업이 발달한 곳이므로, 지금 해설사가 배치 된 곳 외에도 해설사의 해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신규 배치지를 개척하여 해설사들을 배치한다면 해설사 사업이 확장되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객들에게도 제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추천하는 신규 배치지로는, 서귀포 지역에서는 서귀포층, 외돌개, 섭지코지, 대정향교, 알뜨르 비행장, 남원 큰엉 등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새별오름, 제주민속촌박물관, 김녕해수욕장, 애월 한담동 해변과 장한철의 표류 관련해서도 해설사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도보 해설과 투어 해설로 해설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주시의 경우 원도심 도보 해설의 필요성은 항상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 관계가 얹혀 해설사 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보 해설을 한다면, 관덕정에서 시작해서 동문시장-산지천-삼성혈-자연사 박물관-김만덕기념관과 김만덕 객주까지 코스로 운영할 수 있다.
- 버스 투어일 경우 성산 일출봉 주변의 역사와 생태를 해설하는 투어가 될 수 있는데, 광치기 해변-일출봉-섭지코지-하도리 해수욕장-하도리 철새도래지-종달리 해수욕장을 연결시킬 수 있다.
- 현재 제주시의 경우 도시투어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투어에 해설사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
-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투어 버스는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투어 버스에 해설사가 동승하여 해설을 하는 방안이다.
- 이외에도 역사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해설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역사 유적지 투어는 시대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고려시대 관련 유적지로는 항몽유적지-새별오름-중문 법화사-법환포구와 범섬을 연결하여 해설하는 투어가 있을 수 있다.
- 조선시대는 목관아-관덕정-최익현 적거지-송시열 적거지-굴림서원 터-오현단-조천포-연북정을 연결하여 투어 해설을 한다.
- 일제강점기는 알뜨르비행장 일대-격납고-송악산 진지동굴-고사포 기지 와 4.3 관련한 유적들까지 해설하는 코스가 있다.
-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사업의 확대는 제주도를 위해서나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건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토론 3

제주지역 성 인지적 다문화 감수성 교육콘텐츠 개발

염 미 경

(제주대학교 교수)

• 전체적인 평가

- 이 연구는 공무원의 기본 다문화 감수성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성 인지적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는 지닌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지역의 역사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구성해야 하고, 지역과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감수성 교육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 실험적 연구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성 인지적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을 동시에 혹은 융합적으로 녹여낸 교육 프로그램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자원 중 국제/국내 ‘이주의 역사’를 수면 위로 들춰내어 ‘우리 안의 다문화’ 자원을 활용해 다문화 시대 새로운 지역성과 지역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향후 어떤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고는 평가할 수 있다.

•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 이 연구는 기본 지식과 기초 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공무원 대상 교육 자료로 투입될 수 있는 현장 활용을 위한 표준 강의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이외의 지역구성원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성 인지적 관점’이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지식과 기초 자료에 잘 녹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자원이나 사례의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성 인지적 관점과 다문화 감수성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 포함되지 못했으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서 2018년 전국적 쟁점이 된 제주의 ‘예멘난민’ 등 난민, 계절노동자, 선원, 유학생 등 제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주자 사례나 해외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제주인 사례를 포함해나갈 필요가 있다.
-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짧은 기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문화 이해와 소수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향후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볼 때 지역 기반, 공무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초 자료 구성을 시도한 이 연구는 그 시작이라고 본다.
-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아닌, 지역사회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갖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으로서 지역주민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성(locality) 견지에서 지역 특성의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기반 다문화 교육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태어난 출신 국가 혹은 지역을 떠나 새로 정착한 국가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주자의 삶과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주제와 내용 그리고 자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단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태도와 가치 습득 및 인식 변화와 실천을 지향할 수 있는 지역의 주제와 자료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실행은 우리 사회를 진정하게 다문화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고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주자에 대한 지역적 수용의 문제도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주제와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방법, 사례를 통해 전체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 또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자료를 지역사회 및 지역 환경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써 향후 일반시민 대상 범용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의 특성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본 지식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다문화 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및 다문화 교육의 지역화**를 체계적으로 시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 요컨대, 다문화 교육 활동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의 주제와 내용 또한 교육대상자가 생활하는 지역의 사례와 자료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자로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다문화 시대 새로운 지역성 찾기를 위한 지역 단위의 방안 모색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권익팀장)

메 모

메 모

메 모

메 모

메 모